

대만 해외시장동향 (2026년 9월)

'26. 9. 30.(수) /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주요내용 목차]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1.1 대만 아웃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6.1~8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 '26.1~8월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 '26.1~8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1.2 대만 인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6.1~8월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 '26.1~8월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 '26.1~8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대만 인바운드 시장] △ (유치동향) 상반기 대만 인바운드 통계, 일본인 68만499명으로 1위, △ (여행트렌드) 대만 6대 도시 중, 가오슝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1위, △ (관광서)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서 대만관광 홍보, 영국 여행업계 초청

[대만 아웃바운드 시장(일반동향 및 경쟁국 동향)] △ (일반동향) 한국 부산, 일본 후쿠오카 열풍, △ (경쟁국_일본) 일본지방정부, 대만 업계와 협업 다양한 특혜 제공, △ (양안관광) 관광서, 중국 여행단체 사전 의무등록제 발표 후 철회, △ (항공) 한국을 포함한 대만발 해외 노선 추석·동계 대비 공급 확대 지속

[대만 관광산업(국내관광포함)] △ (국내여행) 정부·민간 연합 국내여행 혜택 지급, 연휴기간 국내관광 활황, △ (업계동향) 라이온여행사 12월부터 '인솔자 개별숙박' 전면 시행, △ (정책동향) 대만 입국신고서(TWAC) 10.1일부 온라인화 전면 시행, △ (정책동향) 타오위안공항 환승관광 프로그램 강화, △ (항공산업) 국제공항 인프라 확충 및 국적 항공사 글로벌 경쟁력 제고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6.1~8월 방한 대만관광객수/ - 입국(공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2.2 방한 항공동향

- '26.1~8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25년 대비 증가율
- '26.8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및 주요 분석

2.3 향후 전망: 일본과 중국시장 성장률 크게 앞선 한국, 4분기는 국내관광과 경쟁

3. 타이베이지사 '26.9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1.1 대만 아웃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026.1~8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24년	a/b 증가율
1월	1,765,274	1,613,482	1,281,751	9.4%
2월	1,828,010	1,415,766	1,389,474	29.1%
3월	1,771,921	1,463,304	1,321,971	21.1%
4월	1,755,897	1,475,009	1,347,523	19.0%
5월	1,703,031	1,525,029	1,360,781	11.7%
6월	1,830,537	1,648,672	1,566,852	11.0%
7월	1,997,532	1,733,458	1,572,801	15.2%
8월	1,880,149	1,735,942	1,547,087	8.3%
1~8월	14,532,351	12,610,662	11,388,240	15.2%
9월		1,498,878	1,364,271	
10월		1,735,534	1,409,979	
11월		1,535,165	1,360,810	
12월		1,564,197	1,326,383	
계		18,944,436	16,849,683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9.30 현재 '26.8월 데이터까지 발표)

○ 2026.1-8월 월별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태국	홍콩
1월 (비중)	687,698 (39.0%)	284,532 (16.1%)	163,616 (9.3%)	97,950 (5.5%)	102,407 (5.8%)	140,151 (7.9%)
2월 (비중)	685,066 (37.5%)	249,539 (13.7%)	180,547 (9.9%)	98,964 (5.4%)	113,774 (6.2%)	165,358 (9.0%)
3월 (비중)	640,025 (36.1%)	334,387 (18.9%)	191,864 (10.8%)	101,612 (5.7%)	86,256 (4.9%)	143,377 (8.1%)
4월 (비중)	641,304 (36.5%)	320,587 (18.2%)	188,206 (10.7%)	107,069 (6.1%)	81,037 (4.6%)	145,462 (8.3%)
5월 (비중)	612,475 (36.0%)	330,614 (19.4%)	188,644 (11.1%)	95,186 (5.6%)	73,824 (4.3%)	138,709 (8.1%)
6월 (비중)	666,434 (36.4%)	327,402 (17.9%)	219,477 (12.0%)	96,220 (5.3%)	85,937 (4.7%)	139,453 (7.6%)
7월 (비중)	741,083 (37.1%)	319,827 (16.0%)	247,477 (12.4%)	109,116 (5.5%)	102,452 (5.1%)	147,592 (7.4%)
8월 (비중)	660,800 (35.1%)	325,163 (17.3%)	243,502 (13.0%)	99,573 (5.3%)	100,514 (5.3%)	137,414 (7.3%)
(a) '26.1-8월 (비중)	5,334,885 (36.7%)	2,492,051 (17.1%)	1,623,333 (11.2%)	805,690 (5.5%)	746,201 (5.1%)	1,157,516 (8.0%)

(b)'25 비중*	35.5%	17.1%	9.7%	6.4%	5.4%	8.6%
(c)'24 비중*	35.6%	16.4%	8.5%	7.5%	6.7%	7.1%
(d)'23 비중*	35.8%	14.9%	8.1%	7.2%	6.6%	6.3%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아웃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6.1-8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 대만의 8월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1,880,149명으로 전월 대비 5.8% 하락하였으며, 전년도 아웃바운드 최고 수치를 기록한 ‘25년 8월과 비교하면 8.3%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 대비 낮게 나타남
- 1~8월 누계로는 14,532,35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12,610,662명) 대비 15.2% 증가하였음. 국가별 비중으로는 일본, 중국, 한국 순이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해외목적지는 한국임
- 한국을 찾은 대만 관광객은 1~8월 누적 1,623,333명으로 전년 동기(1,214,328명) 대비 33.7% 성장하였으며, 이는 기타 주요 목적지 성장세(중국 19.6%, 일본 18.8%, 홍콩 7.7% 등)를 크게 상회하며 대만의 해외 여행 수요가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객 중 한국을 목적지로 선택하는 비중 역시 매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8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13%를 기록하였음

1.2 대만 인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026.1~8월 월별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24년	a/b 증가율
1월	723,375	651,078	589,961	11.1%
2월	625,608	699,158	648,348	-10.5%
3월	883,061	778,576	811,608	13.4%
4월	758,613	751,149	610,146	1.0%
5월	692,784	710,933	581,748	-2.6%
6월	611,148	606,346	571,510	0.8%
7월	607,534	586,226	539,454	3.6%
8월	662,735	673,102	616,922	-1.5%
1~8월	5,564,858	5,456,568	4,969,697	2.0%
9월		601,339	575,455	
10월		757,860	661,115	
11월		812,236	747,800	
12월		946,544	903,619	
계		8,574,547	7,857,686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9.30 현재 '26.8월 데이터까지 발표)

○ 2026.1~8월 월별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홍콩/마카오	일본	한국	미국	베트남
1월 (비중)	81,266 (11.2%)	120,310 (16.6%)	130,755 (18.1%)	56,056 (7.7%)	31,044 (4.3%)
2월 (비중)	90,056 (9.3%)	70,337 (11.2%)	96,313 (15.4%)	50,923 (8.1%)	41,169 (6.6%)
3월 (비중)	98,865 (11.2%)	166,393 (18.8%)	94,334 (10.7%)	79,914 (9.0%)	57,327 (6.5%)
4월 (비중)	116,758 (15.4%)	109,235 (14.4%)	82,621 (10.9%)	72,374 (9.5%)	36,859 (4.9%)
5월 (비중)	93,219 (13.5%)	117,617 (17.0%)	78,315 (11.3%)	60,252 (8.7%)	34,768 (5.0%)
6월 (비중)	90,731 (14.8%)	96,607 (15.8%)	43,437 (7.1%)	74,612 (12.2%)	39,958 (6.5%)
7월 (비중)	122,193 (20.1%)	80,557 (13.3%)	46,322 (7.6%)	61,099 (10.1%)	41,261 (6.8%)
8월 (비중)	137,560 (20.8%)	116,582 (17.6%)	50,973 (7.7%)	49,678 (7.5%)	43,599 (6.6%)
(a)'26.1~8월 (비중)	830,648 (14.9%)	877,638 (15.8%)	623,070 (11.2%)	504,907 (9.1%)	325,985 (5.9%)
(a)'25 비중*	15.3%	17.3%	11.9%	8.3%	5.0%
(a)'24 비중*	16.7%	16.8%	12.8%	8.3%	4.7%
(a)'23 비중*	18.5%	14.3%	11.5%	8.2%	5.9%
구 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중국
1월 (비중)	28,113 (3.9%)	33,064 (4.6%)	33,365 (4.6%)	68,517 (9.5%)	46,690 (6.5%)
2월 (비중)	27,312 (4.4%)	21,584 (3.5%)	26,968 (4.3%)	61,602 (9.8%)	58,062 (9.3%)
3월 (비중)	42,966 (4.9%)	47,795 (5.4%)	46,138 (5.2%)	79,900 (9.0%)	46,864 (5.3%)
4월 (비중)	30,013 (4.0%)	38,974 (5.1%)	43,936 (5.8%)	72,629 (9.6%)	49,794 (6.6%)
5월 (비중)	32,022 (4.6%)	36,084 (5.2%)	35,375 (5.1%)	62,800 (9.1%)	58,655 (8.5%)
6월 (비중)	21,925 (3.6%)	31,240 (5.1%)	26,444 (4.3%)	55,379 (9.1%)	50,114 (8.2%)
7월 (비중)	19,071 (3.1%)	21,173 (3.5%)	29,041 (4.8%)	49,189 (8.1%)	58,869 (9.7%)
8월 (비중)	20,991 (3.2%)	19,410 (3.2%)	22,992 (3.5%)	45,904 (6.9%)	67,303 (10.2%)
(a)'26.1~8월 (비중)	222,413 (4.0%)	249,324 (4.5%)	264,259 (4.7%)	495,920 (8.9%)	436,351 (7.8%)
(a)'25 비중*	4.5%	5.2%	4.8%	7.3%	7.4%
(a)'24 비중*	5.5%	5.7%	5.1%	5.9%	5.6%
(a)'23 비중*	6.7%	7.2%	6.1%	5.9%	3.5%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인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6.1-8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 대만의 8월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662,735명으로 전월 대비 9.1% 성장 하였으나, 전년 동기(673,102명) 대비 1.5% 감소하였음. 1~8월 누적치는 5,564,858명으로 전년 동기(5,456,568명) 대비 2.0% 증가하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도 성장세 대비 둔화된 상황임
- 8월 방대만 관광객이 가장 많은 국가/지역은 홍콩/마카오로 137,560명 이었으며 20.8%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1~8월 누적 관광객을 살펴보면 일본이 877,638명으로 15.8%를 차지하여 1위로 나타남
- 대만에 방문한 한국인은 8월 50,973명으로 전월 대비 10% 증가하고 그 비중도 1.1%p 증가하였음.
- 1~8월 누적치를 살펴볼 때, 방대만 주요국가 중 지난해 동기 대비 가장 큰 성장을 한 곳은 필리핀(22.7%)이었으며, 2시간 남짓의 짧은 비행시간, 무비자 입국과 더불어 인플루언서 활용 콘텐츠 확산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대만 인바운드시장

○ (유치동향) 상반기 대만 인바운드 통계, 일본인 68만 499명으로 1위

- 상반기 대만 방문 외국인 중 일본인 관광객이 68만 499명으로 15.8%를 차지하며 1위 기록
- 일본인 개별관광객 비중은 74.17%로 2024년 대비 약 10% 증가, 대만을 처음 방문한 관광객 비율은 62.52%로 팬데믹 이전 대비 13% 증가
- 대만 인바운드 국가별 순위는 일본(68.5만), 홍콩(52.8만), 한국(52.6만), 필리핀(40만), 미국(39.4만), 중국(31만) 순

○ (여행트렌드) 대만 6대 도시 중, 가오슝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1위

- 지난해 가오슝 외국인 숙박건수와 숙박 수입 증가율이 대만 6대 도시 중 1위 기록
- 외국인 관광객 급증의 네 가지 핵심 원동력은 1) 콘서트경제, 2)가오슝 항 여객터미널 오픈, 3)대규모 컨벤션 및 전시 유치 4)효과적인 해외 마케팅과 우호적 관광 환경 조성으로 가오슝시는 분석

○ (관광서)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서 대만관광 홍보, 영국 여행업계 초청

- (뉴욕·시카고·LA) 대만-미국 항공노선 증대 계기 북미관광객 유치 위해 관광서 뉴욕, 시카고 및 LA서 대규모 B2B 프로모션 개최(9.14~18). 여행사, 호텔, 항공사 등 대만 업계가 참가했으며 ‘Taiwan Never Close’라는 슬로건으로 안전하고 다양한 대만 관광콘텐츠 홍보. 관광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북미 관광객의 재방문 유도 및 MICE단체 유치 확대를 기대
- (오사카·고베) 관광서는 일본 젊은 소비자 대만 유치 목적 ‘대만의 100가지 매력’과 ‘24시간의 즐거움’이란 테마로 전통문화, 미식, 인디밴드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로 오사카 및 고베서 홍보행사 개최(8.27~31)
- (말레이시아) 관광서, MATTA 박람회 참가 대만홍보관 운영, 다채로운 관광 매력과 최근 이슬람여행지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대만의 무슬림 친화 관광환경 홍보(9.4~6). 관광서는 제2의 도시 조호르바루에서 B2B 행사도 연이어 개최(9.8)
- (영국) 관광서 런던사무소와 에바항공은 영국 메이저 여행사 대표단을 대만으로 초청, 단순 경유지가 아닌 관광 목적지로서의 대만, 특히 이란현 포함한 동북해안 중심의 관광 홍보

대만 아웃바운드시장(일반동향 및 경쟁국 동향)

○ (일반동향) 한국 부산, 일본 후쿠오카 열풍

- (부산) 아고다 통계에 의하면 상반기 대만인 재방문 목적지 1위는 도쿄, 2위는 오사카, 부산이 처음으로 서울을 제치고 3위 차지. 올해 10대 여행 목적지는 도쿄, 오키나와, 부산, 서울, 방콕,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홍콩, 제주 순으로 역시 부산이 서울을 제쳤고, 제주가 새롭게 순위에 오름. 부산 방문객 수는 작년 동기 대비 54%의 큰 폭 증가 기록
- (후쿠오카) 대만 데이터 기술기업 Keypo에 의하면, 대만인의 일본여행지 언급량 비교시 올해 상반기 중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의 전통적 인기 여행지 언급량 증가 대비 후쿠오카, 오키나와, 구마모토 등 지방도시에 대한 언급량 증가세가 훨씬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후쿠오카의 경우 언급량이 약 85.5% 증가해 새로운 여행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Keypo는 이를 통해 대만인의 일본 여행이 ‘재방문 시대로 진입했다’ 라고 분석

○ (경쟁국_일본) 일본지방정부, 대만 업계와 협업 다양한 특혜 제공

- (가고시마현) 일본 가고시마현은 Klook과 공동으로 대만 포함 외국인 관광객 대상 1인당 최대 11,420엔의 신칸센 열차 보조금 지급
- (이시카와현) 가오슝시-이시카와현은 ‘상호 관광 계획’ 발표, 9.3일 가오슝-고마쓰 간 직항 취항 기념, 10월부터 양 지역 주민들은 상대 지역의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실시
- (하나마키) 하나마키 관광협회는 타이거에어와 공동으로, 해당 지역 직항편 이용 관광객 대상 관광택시 50% 할인권 증정 프로모션 실시

○ (양안관광) 관광서, 중국 여행단체 사전 의무등록제 발표 후 철회

- 관광서, 9.1일부터 중국 여행단체 사전 의무 등록제 실시 및 위반시 NT\$ 1~5만 벌금 부과 공문 여행사에 전달(8월 말 추정)
- 여행업계, 11월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행위이며, 관광서는 해당 지침 실시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력 비판
- 관광서, 상세 지침 연말까지 다시 제공 예정이며, 향후 조치는 ‘내년 논의’ 발표(9.15)

※ 대만인 중국 대륙여행은 올해 상반기 약 20.5% 증가함

○ (항공) 한국을 포함한 대만발 해외 노선 추석·동계 대비 공급 확대 지속
[한국 노선]

- (대한항공) 동계 시즌 타이중-인천 노선 재개(10.25~, 매일)
- (에어로케이) 타이베이-청주 노선 증편(8월 한시, 주 3회 증편), 11월 말부터는 정기편과 부정기편을 통해 일 2회 운항으로 확대 계획. 화렌-인천 노선은 계획대로 7월 말 운항 종료되며, 27년 1~3월 전세편 운항 기획 중
- (이스타항공) 타이베이-부산 노선 8~10월 증편(8.29~10.24, 주 4회 증편)
- (트리니티항공) 가오슝-부산 노선 10.26부터 운항 중단 예정
- (중화항공) 타이베이-부산 노선 증편(주 4회 → 7회) 및 추석 연휴 및 가오슝-김포 노선 재개 확정(10.1~, 주 3회)
- (에바항공) 타이베이-부산 노선 7~8월 증편 및 추석 연휴 대비 타오위안-김해 노선 증편(9.2~10.24)
- (스타럭스) 타이중-부산 노선 여름 성수기 한시 증편(7.16~8.20)

[해외 노선]

- (중화항공) △타오위안-도야마, 주 2회 운항(9.2~) △가오슝-다카마쓰 (주 3회, 9.17~)
- (에바항공) 타오위안-아사히카와, 가을 성수기 대비 전세편 운항(10회, 9.23~10.29)
- (스타렉스) 타이베이-시애틀 신규 취항(8.16~, 주 3회), 타이베이-프라하 신규 취항(8월~, 주 3회), 타이중-삿포로 신규 취항(10.2~, 주 5회)
- (타이거에어) △가오슝-이시가키섬(주 2회, 9.2~) △가오슝-고마쓰(주 2회, 9.3~)
- (기타) 델타항공 타이베이-라스베이거스 CES 특별편 운항 예정('27.1.5), 저장룽항공 타이중-청두 신규 취항(7.28~, 주 2회), 젯스타재팬 가오슝-오키나와(주 3회, 12.6~)

대만 관광산업(국내관광포함)

○ (국내여행) 정부·민간 연합 국내여행 혜택 지급, 연휴기간 국내관광 활황

- (관광서 보조금제도) 관광서는 9월부터 정식으로 ‘국내 평일 여행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觀光雙輪驅動方案－平日國旅優惠) 운영. 평일 국내 숙박시설 이용 시 최대 NT\$2,000(한화 약 9만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동 프로그램 활용 시, 1인당 최대 NT6,7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관광서는 홍보

<평일 국내여행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내용>

구분	혜택 대상	기간	핵심 혜택	최대 혜택
① 평일 숙박 보조	일반 개인 여행객	9/1~11/30	일~목 숙박시 1박 NT\$800, 연속2박째 NT\$1,200할인	본섬 NT\$2,000
				도서 NT\$2,500
② 생일자 숙박권	당월 생일자	9/10~12/31	매월1,000명 추첨, 당첨자 대상 NT\$1,200 숙박권	평일 보조와 중복시 본섬NT\$3,200/도서NT\$3,700
③ 숙박+놀이공원	① 평일 숙박보조 이용자	9/1~11/30	평일숙박보조를 받은뒤 등록하면 숙박할인액 상당 놀이공원 포인트 지급 → 제휴 놀이공원 입장권·상품 등에 사용	최대 2,000포인트

④ Taiwan PASS	Taiwan PASS 철도판 구매자	9/1~12/31	① PASS 50% 할인 또는 ② 정상가구매+NT\$1,500 숙박권 중 택1	교통비NT\$1,250 절약 또는 숙박 NT\$1,500 할인
⑤ 기업 인센티브단	기업·기관 단체	9/1~12/15	여행사가 2일 1박 이상 직원여행을 진행하면 정부가 단체별 보조	1개 여행단체 NT\$20,000 기업당 최대 NT\$60,000

- (지방정부/업계 연계 프로모션) 관광서의 보조금 연계 다수의 지방정부들이 연계 프로모션으로 추가 혜택을 특정기간, 연말 혹은 예산소진시점까지 제공을 경쟁적으로 발표. 일례로, 화롄현은 추가 숙박 혜택을 최대 NT\$7,000까지 지원, 타이난시는 1~2박 관광서 지원 + 3박째는 타이난 무료제공, 신주시는 1박당 NT\$1,000 추가 지원 등 주요 관광도시는 모두 추가혜택 제공(9말 기준 22개 도시). 또한, 전국의 유명 대만 호텔 리조트들도 보조금으로 2박시 NT\$4,000 상당 식음료 제공 등의 프로모션을, 여행사는 새로운 국내여행상품 출시와 할인을, 철도 및 국내 항공노선 등 교통수단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 중
- (국내관광 증가) 매체와 지방정부들은 일제히 중추절·교사의날 연휴(9.24~28) 기간 지역을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도. 실제 자이, 평동, 타이난 등 인기 관광도시의 호텔 객실 점유율은 80%를 넘었고, 유명 관광지와 놀이공원은 지난해 연휴 대비 136%~158%까지 방문객이 급증하였다고 전언. 연휴기간은 관광서의 ‘평일 여행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연계한 지방정부 및 업계 프로모션을 이용한 국내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언론사들은 분석

○ (업계동향) 라이온여행사 12월부터 ‘인솔자 개별숙박’ 전면 시행

- 대만 대표여행사, 라이온은 기존 단거리 노선에 한해 실시하던 ‘인솔자 개별숙박’ 제도를 12.1일부터 장거리 상품으로 전면 확대 적용 발표(기존엔 인솔자는 관광객과 룸 셰어)
- 이로 인해, 소비자의 상품가격은 상승될 수 있으나(인솔자 1인실 추가비용), 인솔자의 업무와 숙소환경 등 처우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상품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라이온여행사는 기대
- 라이온의 이러한 선제적 조치에 대만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은 자사 상품 대상 적용 여부를 검토 중

○ (정책동향①) 대만 입국신고서(TWAC) 10.1일부 온라인화 전면 시행

- 대만 출입국관리소, 통관/입국 효율성 향상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대상 온라인 입국 신고서(TWAC) 시스템 전면 도입 발표
- 중국어, 영어, 한국어 등 7개 언어로 안내, 도착 3일전부터 작성 가능 및 무료로 진행

○ (정책동향②) 타오위안공항 환승관광 프로그램 강화

- 연간 타오위안공항 환승관광객은 600만명, 그 중 단 13만명만 환승관광 실시. 타오위안시는 환승객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타오위안 반일 투어 뿐 아니라 대만 북부지역까지 여행하는 다양한 환승관광 프로그램 마련으로 대응 예정

○ (항공산업) 국제공항 인프라 확충 및 국적 항공사 글로벌 경쟁력 제고

- 타오위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T3) 확충 관련, 27년 말 개장 목표 공식 발표. 중화항공, 에바항공, 스타럭스항공이 3터미널 입주 예정
- 대만 교통부는 장기 공항 인프라 확충 자금 조달을 위해 공항이용료 인상을 발표(기존 NT\$500, 2026년 9월 1일부터 NT\$750 / 2028년 9월 1일부터 NT\$1,000으로 인상)
- 2026년 9월 열린 ‘스카이트랙스 세계 항공 대상’ 에서 에바항공과 스타럭스항공은 최고 등급인 5성급 항공사 인증 유지, 종합 항공사 순위도 전년 대비 상승하는 등 항공 서비스 품질 개선 인증(에바항공 11위, 스타럭스항공 13위, 중화항공 30위)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026.1~8월 월별 방한 대만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a/b 증가율	‘26년 전체 방한객수(c)	a/c 비중
1월	166,779	135,434	23.1%	1,265,658	13.2%
2월	183,753	120,015	53.1%	1,431,472	12.8%
3월	192,138	140,017	37.2%	2,045,992	9.4%
4월	192,854	151,613	27.2%	2,027,860	9.5%
5월	191,795	150,272	27.6%	1,945,809	9.9%
6월	223,127	164,885	35.3%	1,993,128	11.2%

7월	260,532	199,280	30.7%	2,093,223	12.4%
8월	245,277	191,565	28.0%	2,245,293	10.9%
1~8월	1,656,255	1,253,081	32.2%	15,048,435	11.0%
9월		154,992			
10월		161,049			
11월		158,374			
12월		163,918			
계		1,891,414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 2026.1~8월 한국-대만 방문객수

구 분	대만→한국	한국→대만	계
1월	166,779	130,755	297,534
2월	183,753	96,313	280,066
3월	192,138	94,334	286,472
4월	192,854	82,621	275,475
5월	191,795	78,315	270,110
6월	223,127	43,437	266,564
7월	260,532	46,322	306,854
8월	245,277	50,973	296,250
1~8월	1,656,255	623,070	2,279,325

○ 입국(공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단위 : 명)

구 분	전체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대구	청주
'26.1월	166,779	78,932 (47.3%)	44,852 (26.9%)	12,046 (7.2%)	23,820 (14.3%)	2,074 (1.2%)	4,812 (2.9%)
'26.2월	183,753	82,277 (44.8%)	52,909 (28.8%)	13,299 (7.2%)	24,158 (13.1%)	3,796 (2.1%)	6,683 (3.6%)
'26.3월	192,138	76,238 (39.7%)	62,197 (32.4%)	13,299 (6.9%)	26,152 (13.6%)	3,141 (1.6%)	4,445 (2.3%)
'26.4월	192,854	78,191 (40.5%)	67,222 (34.9%)	12,855 (6.7%)	25,096 (13.0%)	3,428 (1.8%)	4,042 (2.1%)
'26.5월	191,795	73,857 (38.5%)	68,371 (35.6%)	13,227 (6.9%)	26,045 (13.6%)	3,081 (1.6%)	3,308 (1.7%)
'26.6월	223,127	85,726 (38.4%)	81,361 (36.5%)	14,681 (6.6%)	27,514 (12.3%)	3,926 (1.8%)	4,410 (2.0%)
'26.7월	260,532	94,449 (36.3%)	96,119 (36.9%)	14,696 (5.6%)	26,626 (10.2%)	3,720 (1.4%)	5,139 (2.0%)
'26.8월	245,277	90,863 (37.0%)	94,956 (38.7%)	15,408 (6.3%)	28,046 (11.4%)	3,827 (1.6%)	5,774 (2.4%)

'26.1~8월 누계	1,656,255	660,533 (39.9%)	567,987 (34.3%)	109,101 (6.6%)	207,457 (12.5%)	26,993 (1.6%)	38,613 (2.3%)
'25년 전체**	1,891,414	884,121 (46.7%)	509,136 (26.9%)	144,491 (7.6%)	211,121 (11.2%)	65,143 (3.4%)	41,385 (2.2%)
'24년 전체*	1,473,908	722,453 (49.0%)	361,863 (24.6%)	123,098 (8.4%)	133,256 (9.0%)	73,467 (5.0%)	27,991 (1.9%)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참고] ()은 전체 입국루트에서 차지하는 비중

* (무안) 591명, (양양) 4명 ** (무안) 0명, (양양) 2명

○ 주요 분석

- 2026년 8월 방한 대만 관광객 수는 245,277명으로 전년 동기(191,565명) 대비 28.0% 증가하였음. 방한 대만 관광객은 '26년 매월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1~8월 누적 방한객은 1,656,25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2.2% 증가하였음
- 2026. 8월 방한 대만 관광객 수의 각 공항별 이용 비중은 인천 37.0%, 김해 38.7%, 김포 6.3%, 제주 11.4%, 대구 1.6%, 청주 2.4%로 나타남. 항공 공급 증가 및 부산 지역 관광콘텐츠의 인기로 7월에 이어 김해공항 입국 비중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주요 입국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음
- 또한 대만 관광객은 3개 지방공항 전체 입국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여(김해 38.7%, 대구 32.5%, 청주 39.2%)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시장 역할을 하고 있음

2.2 방한 항공동향

○ '26.1~8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25년 대비 증가율 (단위 : 편)

구 분	'26년(a)	'25년(b)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전월대비 증가율
1월	2,837	2,486	14.1%	3.4%
2월	2,654	2,215	19.8%	-6.5%
3월	2,902	2,381	21.9%	9.3%
4월	2,871	2,274	26.2%	-1.1%
5월	2,962	2,377	24.6%	3.2%
6월	2,794	2,227	25.5%	-5.7%
7월	2,898	2,440	18.8%	3.7%
8월	3,006	2,460	22.2%	3.7%
1~8월	22,924	18,860	21.6%	-
9월		2,285		
10월		2,622		

11월		2,628		
12월		2,745		
계		29,140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 '26.8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단위 : 편)

구 분	'26.8월	'26.7월	'26.6월	'26.5월
타이베이-인천	716 (6.1%)	675 (-4.9%)	710 (-7.1%)	764 (1.9%)
타이베이-김해	906 (0.7%)	900 (16.9%)	770 (-1.2%)	779 (3.6%)
타이베이-대구	62 (6.9%)	58 (-3.3%)	60 (-3.2%)	62 (-3.1%)
타이베이-제주	244 (2.5%)	238 (-0.8%)	240 (-1.2%)	243 (-0.4%)
타이베이-청주	120 (30.4%)	92 (0.0%)	92 (-25.8%)	124 (4.2%)
타이베이(송산)-김포	124 (3.3%)	120 (0.0%)	120 (-3.2%)	124 (3.3%)
가오슝-인천	186 (2.8%)	181 (0.0%)	181 (0.6%)	180 (-)
가오슝-김해	186 (2.8%)	181 (1.1%)	179 (-3.8%)	186 (4.5%)
가오슝-김포	98 (6.5%)	92 (-2.1%)	94 (-6.0%)	100 (6.4%)
가오슝-제주	72 (7.5%)	67 (-1.5%)	68 (-4.2%)	71 (6.0%)
타이중-인천	186 (2.2%)	182 (2.2%)	178 (-28.2%)	248 (3.3%)
타이중-제주	18 (12.5%)	16 (0.0%)	16 (-15.8%)	19 (11.8%)
타이중-김해	88 (12.8%)	78 (11.4%)	70 (59.1%)	44 (4.8%)
화롄-인천	0 (-100%)	18 (12.5%)	16 (-11.1%)	18 (12.5%)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참고] ()는 전월 대비 증가율

○ 주요 분석

- (전체 운항 규모 및 증가세 지속, 월 3,000편 돌파) 2026년 8월 한-대만 운항편수는 3,006편으로 전년 동기(2,460편) 대비 22.2% 증가하였으며 전월(2,898편) 대비로도 3.7%(108편) 증가하며 올해 처음으로 월 3,000편 대에 진입함. 2026년 1~8월 누적 운항편수는 22,924편으로 전년 동기(18,860편) 대비 21.6% 증가세를 기록함. 이는 하계 성수기 막바지 수요와 맞물려 양국 간 항공 공급 확대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수도권 타이베이-인천 노선 반등 및 주요 거점 회복세) 지난 5~7월 조정세를 겪었던 최대 노선인 타이베이-인천 노선이 8월 들어 716편으로 전월(675편) 대비 6.1%(41편) 증가하며 반등세로 돌아섬. 또한 타이

베이(송산)-김포(124편, +3.3%), 가오슝-인천(186편, +2.8%), 타이중-인천(186편, +2.2%) 등 수도권 연계 주요 노선 대부분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 (지방공항 직항 노선 영남·충청권 중심 공급 확대) [타이베이-청주] 에어로케이의 하계 한시 증편(주 3회 증편 등) 영향으로 전월 92편에서 120편으로 30.4%(28편) 급증하며 중부권 직항 수요를 크게 견인함. [김해(부산) 노선]: 7월 대규모 증편에 이어 8월에도 타이베이-김해 노선이 906편(+0.7%)으로 900편 선을 유지했으며, 타이중-김해 노선은 하계 성수기 증편 효과가 이어지며 88편으로 전월 대비 12.8%(10편) 추가 증가함. 가오슝-김해(186편, +2.8%)를 포함한 김해발 3대 노선의 총 운항편수는 1,180편에 달해 영남권의 강력한 항공 수요를 뒷받침함. [기타 지방 및 제주]: 타이베이-대구(62편, +6.9%), 가오슝-제주(72편, +7.5%), 타이중-제주(18편, +12.5%), 타이베이-제주(244편, +2.5%) 등 주요 지방공항 노선이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임.
- (화렌-인천 운항 종료) 반면 임시 취항 형태로 운항되던 에어로케이의 화렌-인천 편이 예정대로 7월 말(7월 18편 운항)까지만 운항되고 종료됨에 따라 8월 운항편수는 0편(-100%)으로 집계됨.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8월 말(8.29.)부터 시작된 이스타항공의 타이베이-부산 한시 증편(주 4회), 10월 중화항공의 가오슝-김포 노선 운항 재개(주 3회) 등이 대기하고 있어, 전통적인 비수기 진입(9월) 이후에도 지방공항 및 특화 직항 노선을 중심으로 한 항공 공급 확대 흐름과 방한 관광객 유치 기반은 탄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2.3 향후 전망

○ 일본과 중국시장 성장률 크게 앞선 한국, 4분기는 국내관광과 경쟁

- (통계적 분석) 1~8월 대만관광서 아웃바운드 누적 통계 기준, 전체 아웃바운드 인원은 1,453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목적지는 한국으로 162만, 33.7% 증가했으며, 1위 목적지 일본은 533만으로 18.8%, 2위 목적지 중국은 249만, 19.6% 증가. 8월의 통계는 매우 의미미한데, 일본의 상승률이 5.9%에 그쳐 큰 폭 둔화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30.3% 크게 증가하여, 여행시장에서 소비자의 한국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남. 대만 현지 업

계와 언론은 여름방학 최대 성수기 불구, 일본시장의 증가율 감소를 의외의 현상으로 평가하며 그 원인으로 △7월말 구마모토 지진 △8월 일본지역 태풍 및 항공편 결항 △8월 대만-일본 항공좌석 감소/증가율 둔화 △일본 엔화환율 및 여행가격 상승 △한국 및 중국 등 기타 목적지로 여행수요 분산 등을 들고 있음. 올해 들어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대비 한국 관광객 증가율이 높다는 사실로 부터 남은 4분기 방한수요도 대만 전체 아웃바운드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시장환경적 분석) 다만, 4분기 대만 방한시장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은 긍정적이지 않음. 우선, 연간 경제성장률은 약 11%로 예측되고 있고(아시아개발은행), AI특수로 대만 기업들의 수출은 8월 기준 34개월 연속 증가하는 대기록을 수립 중. 정부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방한 관광객의 핵심층이 될 수 있는 일반 소비자, 특히 젊은층의 경제상황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분석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음. 증시는 연초 대비 75.9% 상승했으나 외식업 매출은 3.7% 증가에 그쳤고, 기업 인력난 불구 청년층 실업률은 11.71%로 평균 3.39%를 크게 웃도는 상황으로 현재의 경제호황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 계층으로 과집중되고 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환율 상승도 가격에 민감도가 큰 대만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여기에, 11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정부기관·관련기업의 해외출장이 중단되고, 일반인들도 선거참여를 위해 해외여행을 연기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는 방한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가장 큰 변수는 대만 정부와 관광업계의 대대적인 ‘국내여행 활성화 프로모션’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국내여행의 중복 보조금 지급과 업계의 경쟁적 할인/혜택 프로모션은 평소 ‘국내여행은 비싸다’라고 인식하고 국내여행을 기피하는 대만인들의 국내여행 수요를 어느정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보조금 시행 첫달인 9월은 중추절 연휴도 있어, 그 효과가 분명해 보이고, 4분기 중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인지 주시 필요
- (여행업계 방한상품 현황 분석) 타이베이 주요 여행사들은 공히, 올

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좋지 않고, 3분기 실적은 1~2분기만 못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인기가 좋은 단품상품이나 겨울 스키와 축제 상품도 예년에 비해 판매가 더딘 편. 실제 방한 총인원은 큰폭으로 상승중인 만큼, 여행사 이용 단체관광객의 방한보다 개별관광객의 방한이 훨씬 큰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최근 타이베이시사가 실시한 중남부권 세일즈콜을 통해 접촉한 중부(타이중) 여행사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한국상품 판매 실적은 매우 우수, 연간 성장률이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전함. 이는 최근 스타럭스의 타이중-부산 신규취항(6.1~)으로 대표되는 타이중발 한국행 항공노선과 편수의 증대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방한 단체는 타이중 시장 중심으로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전망) 9월부터 중앙·지방정부와 관광업계가 연합하여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내관광 보조금’ 사업은 아웃바운드 수요를 국내로 묶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거리 해외여행시장인 한국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그밖에 대만의 정치(선거), 경제(양극화) 등의 국내 상황 역시 방한관광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4분기 방한시장 성장률은 1~3분기 대비 다소 둔화할 수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목적지 대비 높은 성장세 유지 전망의 근거는 올해 한국이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4분기에는 10월 연휴(국경절, 10.9~11)와 11월 대만 최대 여행박람회(ITF, 대만국제여전)라는 해외여행 특수가 대기 중이기 때문임

3. 타이베이지사 '26.9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 3.1 2026년 하반기 여행업계 모객광고지원 실시(7~12월)
- 3.2 지방공항 연계상품 및 전세기 상품 특별지원 추진(7~12월)
- 3.3 항공업계 협업 방한 항공 프로모션 실시(7~12월)
- 3.4 'K-local 100' 캠페인 추진(중화항공·라이언여행사 협업)
- 3.5 Klook 및 여행사 공동 FIT 여행상품 프로모션 추진
- 3.6 '한국 중부관광의 해' 여행 후기 공유 및 사진공모전 추진
- 3.7 항공사-Pay사-유통사 협업 지방공항 FIT 활성화 통합 마케팅 추진(9~12월)
- 3.8 대만 매체·인플루언서 협업 팸투어 추진
- 3.9 대만 중남부지역 여행업계 세일즈콜 추진
- 3.10 대만 방한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지원(12월)

※ 언론매체(연합보, 나우뉴스, 뽀바오, 자유시보, 중국시보, 뽀치, 공상시보, TVBS, 중앙통신사(CNA) 등), 대만 관광서, 대만관광협회, 대만여행업품 질보장협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및 업계동향 등 종합. 끝.